



분위기 한잔 어때?

'카페 베이커리 60'

최근 새롭게 떠오른 관광 트렌드 중 하나가 바로 '카페'다. 예쁜 사진을 남기거나 좋은 품질의 커피 또는 디저트를 맛보며 추억을 쌓는 것이 요즘의 감성으로 자리잡고 있어서다.

최근 경상북도가 '카페 베이커리 60-오늘은 어디 갈까?'를 펴냈다. 이 책자에는 23개 각 시군을 대표하는 카페, 베이커리, 디저트가 총 60곳이 담겼다. 이 중 구미와 청송, 영덕의 카페 각각 한 곳을 직접 찾아가봤다. 책자에서 보는 것보다 볼거리, 먹을거리가 풍부했다.



대게로 유명한 영덕 강구항, 대게거리와 해파랑 공원을 지나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자리 잡은 '카페본'은 그야말로 '동해바다 전망 맛집'으로 불린다. 이곳에는 파도를 품은 잔'이라 불리는 대형 커피잔 조형물이 있는데 포토존으로 유명하다.



◇'개구리 박물관' 구미라나커피

최근 젊은층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구미 '금리단길' (금오산+경리단길)의 끝에서 금오전을 건너면, 비교적 한적한 곳에 라나커피가 자리하고 있다. '라나'는 스페인어로 개구리라는 뜻. 1층은 카페, 2층은 개구리공예전시관으로 운영된다.

1층 카페에 들어서면 중앙에 커다란 진열장이 눈에 띈다. 셀 수도 없을만큼 수많은 개구리 장식품들이 빼곡히 들어섰다. 1층에 있는 개구리만 수백 마리는 족히 될 듯하다. 2층은 더욱 놀랍다. 300㎡가 넘는 공간의 벽면은 물론, 중앙에도 개구리가 가득하다. 그야말로 초록 세상이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도자기로 만든 장식품부터 쿠션, 팬, 계산기, 장난감, 물걸, 열쇠고리, 양말, 신발 등 다양한 제품의 개구리들이 관람객을 맞는다.

풍성한 개구리, 날씬한 개구리부터 마이클잭슨 개구리, 발레리나 개구리, 슈퍼맨 개구리, 자전거를 탄 개구리, 다양한 악기를 든 개구리 오케스트라까지 다양한 개구리들의 모습이 보는 즐거움을 더한다.

이 모든 작품은 운영속 대표가 44년간 수집한 것. 청도에서 '개구리박물관'으로 인기를 끌다가, 작품이 많아져 관리가 어려워져서 1년전쯤 이곳으로 옮겼다. 라나커피가 알려지면서, 주말이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윤 대표는 "카페에 자리가 없을 땐 개구리전시관을 먼저 구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커피에 크림을 듬뿍 올린 '라나슈페너'와 수제정 자몽티, 수제 블루베리 요거트, 우리쌀 외풍이 인기다.



◇한옥 정취 물신, 청송 백일홍

경주 최부잣집과 함께 조선시대 영남 부호 가문으로 손꼽히는 청송 심부잣집. 심부잣집 저택인 송소고택(파천면 덕천리)은 영조 때 만석꾼으로 불린 심처대의 7대손 송소 심호택이 1880년에 지은 것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관광 명소다. 한옥 건물을 리모델링한 '리빙카페 백일홍'은 바로 이 송소고택 옆에 위치하고 있다.

'리빙카페'라는 명칭에 걸맞게 방 하나는 아예 소품숍으로 꾸며놓았다. 도자기 공예가인 최해자 대표가 손수 만든 도자기 그릇과 컵이 진열대 가득 놓여져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색상, 패턴의 천으로 만든 알침마 등 손님들의 눈을 사로잡을 리빙 소품들이 가득하다. 자유롭게 구경하고, 구매를 원하면 카운터에 들고가 계산하면 된다.

카운터가 있는 내부 공간도 독특하다. 넓고 오래된 책, 꽃무늬 도자기, 아기자기한 식물이 한데 어울려 여유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최 대표는 "마당 풀 한포기까지 직접 심을 정도로 어느 것 하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며 "그동안 내가 쌓아온 다양한 취미생활들을 집약해놓은 공간인데, 구경이든 구매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 카푸치노 등 커피 메뉴는 물론이고, 진저라떼와 '오늘 달인 대추쌍화차', 생강에이드, 딸기라떼 등 달콤한 메뉴도 먹어볼 만하다. 때에 따라 레몬, 유자, 생강, 사과, 자두, 청귤청 등으로 차와 에이드를 내놓는데, 모두 최 대표가 직접 만든 것들이다. 청송사과잼 토스트도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다.

최 대표는 "예전에는 송소고택을 검색하고 찾아오던 관광객들이 이제 카페를 검색해서 찾아오는 시대가 됐다. 경북의 대표 카페로서 책임감을 갖고 잘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크릿 가든'

◇북카페, 정원 등 볼거리 다양

'경북 카페 베이커리 60-오늘은 어디 갈까?' 책자에는 이외에도 특색 있는 카페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었다.

포항 구룡포에서 호미곶으로 가는 해안도로 곁의 작은 섬 위에 위치한 '포인트'는 새하얀 건물로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내부 곳곳 큰 창을 냈는데, 탁 트인 동해 바다가 마치 액자에 담긴 듯한 효과를 낸다. 별관 건물의 루프탑도 포토존이며, 큐브라떼와 아인슈페너가 인기다.

울진 '카페 구산블루스'는 가수 핑클이 캠핑카를 타고 추억여행을 떠났던 예능 프로그램의 배경으로 등장한 울진 구산해변에 자리하고 있다. 송림으로 둘러싸인 이 카페에서는 공정무역 원두로 커피를 만들고, 안동에서 공수해 온 수제 국화차 등 국산 재료를 고집한다.

안동 '구름에오프(Off)'는 안동문화관광단지 내에 위치한 북카페다. 인문학, 소설, 여행서 등 1300권이 있다. 경감한 인테리어와 고즈넉한 주변 풍경이 잘 어우러진다. 또한 영양 삼지연꽃테마파크에는 '카페 삼지(3G)'가 있다. 카페 삼지 앞 수변공원에는 토종 연꽃인 법수홍련이 자란다. 연못 둘레로 3km 길이의 데크 탐방로가 갖춰져 있어 둘러보기 좋다. 연꽃 개화기인 7-8월에는 카페의 넓은 창으로 연꽃이 한아름 들어와 안긴다.

팔공산 산자락에 위치한 철곡 '시크릿가든'은 경상북도 제1호 민간정원으로 지정된 곳이다. 약 6000㎡의 정원을 개인이 20여년간 가꾸었다. 카페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계곡과 다양한 식물군을 감상할 수 있다. 정원 카페답게 꽃차 시그니처 메뉴다. 목련, 맨드라미, 수국, 국화, 매화 등 꽃차 종류가 다양하다.

/한국지방신문협회 매일신문 이연정 기자 lyj@imaeil.com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에도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프로야구단지정숙소 KBO LEAGUE

승무원지정숙소 KOREAN AIR

승무원지정숙소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지정숙소 t'way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